

# 미원주민 선교주일

예 배 자 료



열린 기쁨,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미원주민 선교주일

예 배 자 료

개 교회가 미원주민선교주일을 지킬 때, 본 예배 자료들을 활용하세요. 아래의 자료들은 예배와 맞물려 사용되도록 계획되었지만, 개 교회 실정에 맞게 바뀌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배 자료를 주보나 유인물에 포함하여, 교우들이 이 특별한 날에 관해 생각하게 하세요. [ResourceUMC.org/NAMS](http://ResourceUMC.org/NAMS) 에서 함께 제공된 자료들을 확인하세요.

부활 후 셋째 주 주일 - 2021년 4월 18일

사도행전 3:12-19 | 시편 4 | 요한일서 3:1-7 | 누가복음 24:36b-48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이 공간은 수천 년 동안 \_\_\_\_\_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살았던 미원주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미원주민 부족 지도 참조](#)) 부족이 관리해 온 곳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 지역에서 기억되고 우리 공동체의 역사에 함께 엮여 있습니다. 미원주민선교주일인 오늘뿐만 아니라 또 매일 매일, 우리는 과거의 해악을 치유하고, 자각과 존중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며, 첫 번째 미국인들의 공헌을 받아들이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 기도\*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성품으로 인해 또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서로 연결된 신성한 고리(the Sacred Circle)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두셨습니다. 오늘 미원주민선교주일에 더 베풀며 살고, 더 긍휼히 여기며 사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 자라게 하셔서 존중과 헌신 안에 함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미원주민 선교주일

## 예배자료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예배로의 부름

그리스도 주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도자: 이 세상 만물이 신성합니다.

회 중: 모든 반짝이는 솔잎, 모래 가득한  
바닷가,  
어두운 숲의 얽은 안개,  
활발히 움직이고 뿔뿔거리는 곤충  
은 모두 거룩합니다.

인도자: 바위 꼭대기, 초원, 짐승과 모든 사  
람은 다 한 가족입니다.  
자녀들에게 땅이 우리의 어머니임을  
가르치십시오.

회 중: 땅에 닦친 것은 무엇이든 그 자녀  
들에게 닦칩니다.  
우리는 땅의 일부분이고, 땅은 우리  
의 일부입니다.

인도자: 강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회 중: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고 공  
기는 소중한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숨을 공유합니다.

인도자: 우리의 조상들에게 숨을 주었던 바  
람은 또한 그들의 마지막 숨을 받  
았습니다.

회 중: 바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영을 주었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의 것이 아닙니다.

회 중: 우리가 땅의 것입니다.

인도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 중: 마치 가족을 하나로 묶는 피와 같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  
니다.

인도자: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들을 동등  
하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회 중: 생명의 그물을 짠 것은 우리가 아  
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안에 있는 한 가닥  
일 뿐입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미원주민 선교주일

## 예배자료

인도자: 우리가 그 그물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회 중: 그 그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그 고리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세기 미국 시애틀 미원주민 대표의 연설에 영감을 받아 작성된 *연합감리교회 예배서*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78 헬렐루안  
(Heleluyan)

### 치유와 소망을 위한 기도\*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누군가 겪었던 고통과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 평화와 회복을 위한 소망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멈춤)

거룩한 성령님, 모든 사람과 부족의 하나님 이시며 자신을 통해 모든 이들을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인류와 친족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어 정의의 렌즈로 과거의 부서진 것들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잠시 멈춤)

주님의 음성에 또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또한 용기와 인내심, 지혜를 주사 현재와 미래에 모든 이들과 함께 치유와 소망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잠시 멈춤)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고, 우리가 존엄하게 살도록 모든 이들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와 평화 안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미원주민 선교주일

## 예배자료

### 축도\*

(골로새서 2:6)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생명의 고리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순간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아니타 필립스 목사, 오클라호마 원주민 선교연회

\* 본 예배 자료는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북서 워싱턴 시노드와 미국 성공회 올림피아 교구의 사역인 사도들의 교회(the Church of the Apostles)가 마련한 예배 자료를 일부 활용하여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

<https://www.epaumc.org/wp-content/uploads/Liturgy-for-Celebrating-Indigenous-Peoples-Day-2020.pdf>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